

동물들의 순수한 형제애

우리 인간들은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짐승 같은 놈”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동물을 대하면서 이러한 표현이 옳은 비유가 아니라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인간은 모든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상을 보면 오히려 동물의 세계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어미가 새끼에게 보여주는 극진한 보호와 사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동물에게서 형제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더욱이 강자만이 존재하는 야생동물의 세계에서조차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진한 감동 그 자체였다. 동물원에서 있었던 호랑이 세쌍둥이의 이야기다. 자연상태의 호랑이는 단독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년이 되면 어미곁을 떠나 각자의 길을 가지만 동물원에서는 한정된 공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생활하게 된다.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이지만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나 왕좌를 유지하기 위해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다. 이들 수컷 삼형제는 체구가 그리 크지 않아 항상 서열에 밀렸으나 5살이 되면서 강자가 지배하는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삼형제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지고 단결된 힘은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개체를 한 마리 한 마리씩 공격하여 무리를 제압하기 시작했다. 우두머리급의 호랑이들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중간보스급의 호랑이들이 차례로 무너지자 비로소 긴장을 하기 시작했으나 전투력이 급상승한 삼형제를 상대하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자신감을 가진 삼형제는 곧바로 우두머리를 공격하여 한순간에 왕좌를 빼앗았다. 이들의 위세에 나머지 우두머리급 호랑이들은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굴복함으로써 삼형제는 무리를 평정하게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면 외적에 대항하고 자신의 무리를 보호하면서 이끌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이들 삼형제는 왕



신 남 식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nsshin@snu.ac.kr

+
동물들의 순수한 형제애

자를 차지한 후에도 체력의 열세를 굳건한 형제애로 극복하면서 무려 4년이나 무리를 잘 이끌어나갔다. 호랑이 세계의 4년이면 인간세계의 15년이 넘는 긴 세월이다. 우리 인간이었다면 이러한 긴 기간 동안 형제들이 협력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였을까?

다음은 원숭이 무리에서 있었던 두 살 터울의 원숭이 남매 이야기다. 원숭이 무리 중에 18살 된 나이 많은 어미 원숭이는 2살짜리 딸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해 늦둥이 아들 원숭이를 낳았다. 어미 원숭이는 늦둥이를 애지중지 길렀으나 어느 날 부터 털의 윤기도 없어지고 행동도 둔해지며 점점 먹는 양도 줄어들어갔다. 결국은 6개월 된 늦둥이를 남기고 눈을 감았다. 원숭이는 모계중심사회로 어미가 없으면 약한 어린것들은 다른 개체들의 공격대상이 되기에 생존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때문에 사육사들은 이를 걱정하여 곧바로 격리하여 기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2살 된 누나 원숭이가 동생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아직 자신도 확실한 위치를 갖지 못한 어린 누나 원숭이는 엄마를 대신하여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소녀가장이 된 것이다. 주변의 다른 무리들은 틈만나면 남매 원숭이를 괴롭히며 구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 남매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상대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4살 된 수컷이 동생을 심하게 괴롭히자 누나 원숭이는 온몸을 던져 필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저항하였다. 힘이 부족한 누나 원숭이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지칠 대로 지쳤지만 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로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사육사가 그 순간을 못 보고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면 누나 원숭이는 죽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이일이 있은 후 사육사들은 어린 새끼의 안전을 위해 격리하기로 하고 동생을 무리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 그러자 또 문제가 발생하였다. 누나 원숭이가 며칠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며 동생을 찾느라 안절부절 못하고 헤매는 것이었다. 결국 동물원에서는 누나 원숭이도 무리에서 분리하여 동생과 같이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모든 동물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형제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역사 훨씬 이전부터 진화와 멸종을 반복하며 살아온 동물들. 그들은 분명 인간보다 많은 경험과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본능적으로 순수하게 표현하며 생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겪어낸 형제애의 이야기도 인간이 본받을 만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데뷔수](#)

